

KOSDAQ | 전자와 전기제품

상신이디피 (091580)

2차전지 캔 전문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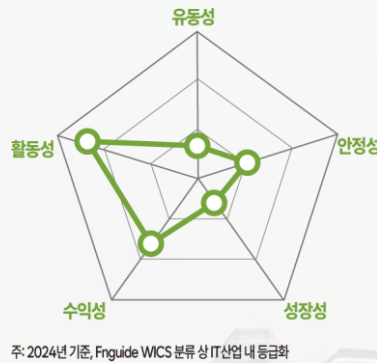
체크포인트

- 2차전지 캔 제조 전문기업으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S사가 주요 고객.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원형 32%, 중대형 56%, 기타 및 연 결조정이 12% 차지
- 투자포인트: 1)주요 고객의 ESS 물량 증가 2)고객 다변화 가능성
- ESS 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원통형 배터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고객은 가동을 회복 국면에 진입. 상신이디피도 가동률이 회복되며 2025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에 성공. 2025년 연간으로 매출액 2,412억 원(yoy -4.2%), 영업이익 91억 원(흑자 전환)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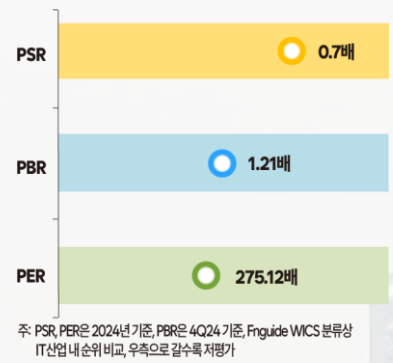
주가 및 주요이벤트



재무지표



밸류에이션 지표



S사 밸류체인인 핵심 캔 제조업체

2차전지 캔 전문업체로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 S사가 주요 고객. 2025년 3분기 누적 매출 기준 원형 캔 32%, 중대형 캔 56%, 기타 및 연결조정이 12%를 차지

주요 고객의 ESS 물량 증가

주요 고객 S사는 당초 EV용으로 설계되었던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스타플러스에너지) 1공장을 ESS용으로 전환 중. 2026년 4분기부터 24GWh 규모의 ESS 설비가 순차적으로 가동될 예정. 이에 따라 핵심 부품 공급사인 상신이디피 또한 인디애나 설비 증설 필요성이 대두

고객 다변화 가능성

높은 단일 고객사 의존도는 상신이디피의 구조적 디스카운트 요인. 중국 업체들의 글로벌 벤더 다변화 수요와 국내 배터리 업체들의 각형 배터리 시장 진입이라는 우호적 산업 흐름이 더해져 고객사 다변화 가능성 증가

주요 고객의 회복 속도가 관건

ESS 부문의 견조한 성장과 원통형 배터리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면서 주요 고객 S사는 가동률 회복 국면에 진입. 향후 주가는 주요 고객 S사의 ESS 부문의 성장 속도와 EV 부문의 수요 회복이 관건

Forecast earnings & Valu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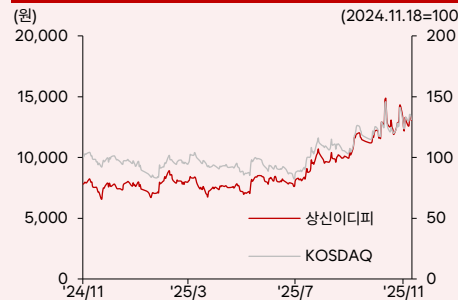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억원)	1,975	2,908	3,016	2,518	2,412
YoY(%)	30.2	47.2	3.7	-16.5	-4.2
영업이익(억원)	197	328	302	-82	91
OP 마진(%)	9.9	11.3	10.0	-3.3	3.8
지배주주순이익(억원)	175	245	262	6	40
EPS(원)	1,311	1,804	1,924	47	297
YoY(%)	94.5	37.6	6.6	-97.5	526.3
PER(배)	11.9	8.3	8.2	156.3	43.9
PSR(배)	1.1	0.7	0.7	0.4	0.7
EV/EBITDA(배)	8.1	5.3	5.3	19.1	8.1
PBR(배)	2.1	1.7	1.5	0.6	1.1
ROE(%)	20.2	21.9	19.5	0.4	2.5
배당수익률(%)	0.6	0.8	0.8	1.3	0.8

자료: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Company Data

현재주가 (11/28)	13,040원
52주 최고가	14,870원
52주 최저가	6,540원
KOSDAQ (11/28)	912.67p
자본금	69억원
시가총액	1,738억원
액면가	500원
발행주식수	13백만주
일평균 거래량 (60일)	22만주
일평균 거래액 (60일)	29억원
외국인지분율	4.48%
주요주주	김민철 외 5인 28.69%

Price & Relative Performance



Stock Data

주가수익률(%)	1개월	6개월	12개월
절대주가	-116	68.5	63.8
상대주가	-12.5	34.5	24.6

참고

1) 표지 재무지표에서 안정성 지표는 '이자보상배율', 성장성 지표는 'EPS 증가율', 수익성 지표는 'EBITDA마진율', 활동성지표는 '순운전자본회전율', 유동성지표는 '당좌비율'임. 2) 표지 밸류에이션 지표 차트는 해당 산업군내 동사의 상대적 밸류에이션 수준을 표시. 우측으로 갈수록 밸류에이션 매력도 높음.



기업 개요

연혁

2차전지 캔 전문기업

상신이디피는 2차전지 캔 제조 기업이다. 1985년 설립 이래 축적된 정밀 금형 기술을 바탕으로, 과거 브라운관(CRT) 부품에서 모바일용 소형 전지, 그리고 전기차(xEV)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용 중대형 전지 부품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성공적으로 고도화했다. 2007년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다.

1. 기반 구축 및 법인 전환(1985~1999)

1985년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1992년 법인으로 전환했으며, 당시 주력 제품은 CRT TV용 전자총 부품과 스프링 등 정밀 전자부품이었다.

2. 사업 구조 전환 및 도약(2000~2014)

디스플레이 시장의 패러다임 변화(CRT → LCD/PDP)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2002년부터 2차전지 부품 개발에 착수했다. 당시 일본 기업이 독점하던 2차전지 캔(CAN)의 국산화에 성공하며 노트북, 휴대폰 등 소형 IT 기기용 배터리 부품의 주요 공급사로 자리매김했다. 2007년 코스닥 상장을 통해 대외 신인도를 제고했으며, 2013년에는 말레이시아 법인을 설립하여 원형 캔 생산 능력을 확대했다.

3. 글로벌 확장 및 포트폴리오 고도화(2015~현재)

전기차(xEV) 및 ESS 시장 개화에 발맞춰 주력 제품을 중대형 캔으로 확장했다. 고객사의 글로벌 생산 전략에 연동하여 2018년 헝가리 법인, 2023년 미국 인디애나 법인을 잇달아 설립함으로써 한국-아시아-유럽-북미를 잇는 글로벌 공급망을 완성했다.

연혁

1985~2007	2008~2015	2016~
1985.05 수원 본사 설립(상신정밀-개인) 1988.10 양산 사업장 설립 1992.03 법인 전환 1996.10 100PPM인증 획득 - TV브라운관 스프링 2002.09 평택공장 설립 2003.05 우수 협력회사 상 수상 - 삼성SDI 2004.01 대산전자 설립 2004.07 상신EDP로 상호변경 2007.04 천안공장 설립(이전) 2007.05 코스닥시장 신규상장 2007.08 해영전자(주) 인수	2008.04 대산전자 지분 100%소유 2008.09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선정 - 경기도청 2009.12 해영전자(주) 흡수합병 2010.06 자동차 2차전지용 부품의 제조 인증획득 2011.05 KDB Global Star 인증 - 한국산업은행 2011.11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사업 인증 - 한국수출입은행 2013.02 상신에너텍(말레이시아 현지법인) 설립 2015.02 상신하이텍(중국 현지법인) 설립 2015.04 (주)태화프라텍 인수 2015.04 AEO(종합인증우수업체_수출부분)인증 획득 - 관세청	2016.04 (주)태화프라텍 아산공장 이전 설립 2017.11 삼성SDI 제조혁신 우수상 수상 2018.11 상신헝가리(헝가리 현지법인) 설립 2018.12 (주)태화프라텍 흡수합병(아산 사업장) 2019.04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2020.03 본점 변경(수원 → 천안) 2021.04 중국 대산전자 2공장 증축 2023.01 상신인디애나(미국 현지법인) 설립 2024.03 수원사업장 이전 및 상호변경(수원지점 → 화성지점) 2025.04 대표이사 체제 변경(단독대표 → 각자대표)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기업개요

3Q25 YTD 매출비중

원형 32%, 중대형 56%,

기타 및 연결조정 12%

상신이디피는 2차전지의 핵심 외부 부품인 캔(CAN) 제조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한다. 주요 제품별 매출 비중은 원형 CAN 32%, 중대형 CAN 56%, 기타 및 연결조정 12%로 구성된다. 최대 고객사는 국내 배터리 제조사 S사로, 전체 매출의 약 90.2%를 차지할 만큼 높은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

제품별 용도 및 생산 거점은 다음과 같다.

- **원형 CAN:** 전동공구, 가전, IT 기기(노트북, 태블릿), 전기차, BBU(Backup Battery Unit) 등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된다. 생산은 국내 천안 공장을 비롯해 중국 천진, 말레이시아 법인에서 담당한다.
- **중대형 CAN:** 주로 전기차(xEV) 및 ESS(에너지저장장치)에 사용된다. 국내 양산 공장과 헝가리, 미국 법인이 주요 생산 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기타:** 소형각형 CAN, CID(Current Interrupt Device, 전류차단장치), TAB 및 단자류 등으로 구성된다.

원형 CAN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Vent & Cap 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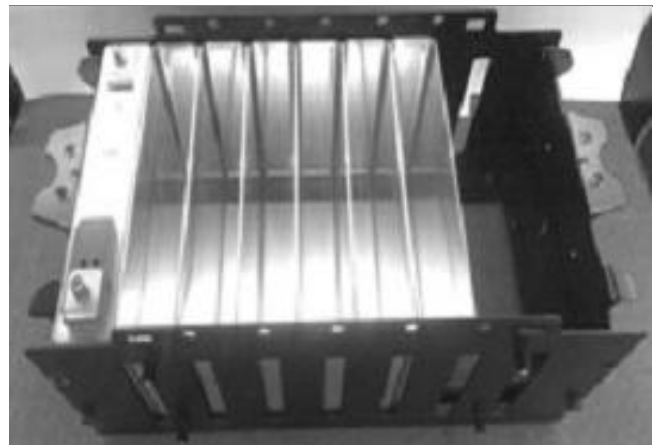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xEV/ESS CAN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ESS 모듈 케이스 부품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2025년 3분기 말 기준 연결 대상 종속회사는 총 6개 사로, 모두 2차전지 부품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한다. 상신이 디피가 지분 100%를 보유한 완전 자회사 형태이며 중국(천진), 말레이시아, 헝가리, 미국 등 주요 거점에 진출해 있다 (미국 내 상신코코모는 상신인디애나의 100% 자회사 구조).

한편, 2025년 8월부터 중국 서안 법인(상신하이텍)의 생산 활동을 중단했다. 이는 수익성이 저하된 사업을 정리하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타 글로벌 거점에 경영 자원을 집중하여 전사적 수익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적 결정이다.

상신이디피 사업장 소개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상신이디피의 연결대상 종속회사 현황(2025년 3분기)

(단위: 억 원)

종속기업	설립일	주소	자산	부채	자본	매출	분기순이익	총포괄이익
천진대신전자유한공사	2003.12.	중국 천진	296	157	139	215	18	15
상신에너텍	2013.02.	말레이시아	617	249	368	273	9	13
상신하이텍	2015.02.	중국 서안	77	5	72	41	-24	-28
상신헝가리	2018.11.	헝가리	582	351	230	528	14	30
상신인디애나	2023.01.	미국	893	811	82	149	-47	-52
상신코코모	2025.03.	미국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상신코코모의 재무현황은 연결조정을 통해 상신인디애나에 포함되어 있음 주2: 상신하이텍은 2025년 8월부터 생산활동을 중단

딥 드로잉 기술이 핵심

상신이디피가 제조하는 2차전지용 캔(Can)은 원형과 중대형(각형) 타입 모두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전극 조립체를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하고 전해액을 담는 필수 용기 역할을 한다. 두 제품군은 형태와 소재의 차이가 있으나, 평평한 금속 판재를 이음매 없는 깊은 용기 형태로 가공하는 딥 드로잉(Deep Drawing) 기술을 공통적인 기반으로 하여 생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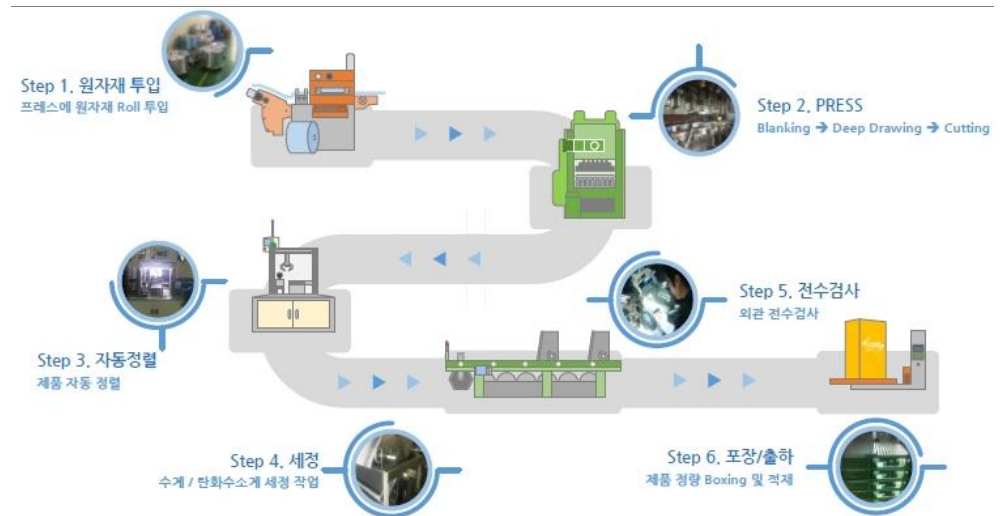
제조 공정은 코일 형태의 원자재를 평평하게 펴서 공급하는 단계부터 시작된다. 원형 캔에는 주로 니켈도금강판이, 중대형 캔에는 주로 알루미늄이 사용되지만 공정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 공급된 판재는 프레스 금형을 통해 제품 규격에 맞는 크기로 절단되거나 곧바로 얇은 컵 모양으로 1차 성형(Cupping)된다. 이 초기 단계에서 생성된 컵은 최종 제품보다 직경은 크고 길이는 짧은 형태를 띠며, 이후 공정을 통해 점차 얇고 긴 모양으로 변형될 준비를 마친다.

이후 공정의 핵심인 다단계 드로잉 및 아이로닝(Ironing) 단계가 진행된다. 1차 성형된 컵을 점차 좁고 깊은 금형 속으로 통과시켜 원하는 직경이나 폭으로 축소하고 길이를 연장시킨다. 이 과정에서 캔의 측면 벽 두께를 얇고 균일하게 펴주는 아이로닝 공법이 필수적으로 적용되는데, 이는 배터리의 무게를 줄이고 내부 용적을 극대화하여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원형 캔은 균일한 압력을 받는 반면, 중대형 캔은 모서리 부분에 응력이 집중되는 특

성이 있어 이를 제어하는 정밀 금형 설계 역량이 요구된다.

성형이 완료된 캔은 드로잉 과정에서 불규칙하게 늘어난 상단부 가장자리를 정해진 높이에 맞춰 정밀하게 절단하는 트리밍(Trimming) 과정을 거친다. 이어 가공 중 발생한 금속 가루와 마찰 저감을 위해 사용된 윤활유를 제거하는 세정 및 건조 공정이 수행되는데, 이는 배터리 내부의 화학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 절차다. 마지막으로 비전 검사 장비 등을 활용해 치수 정밀도와 표면 상태를 검사하고, 미세한 구멍(Pin-hole)이나 크랙 유무를 확인하는 전수 검사를 거쳐 최종 완제품으로 출하된다.

이차전지 캔 Deep Drawing 공정도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요주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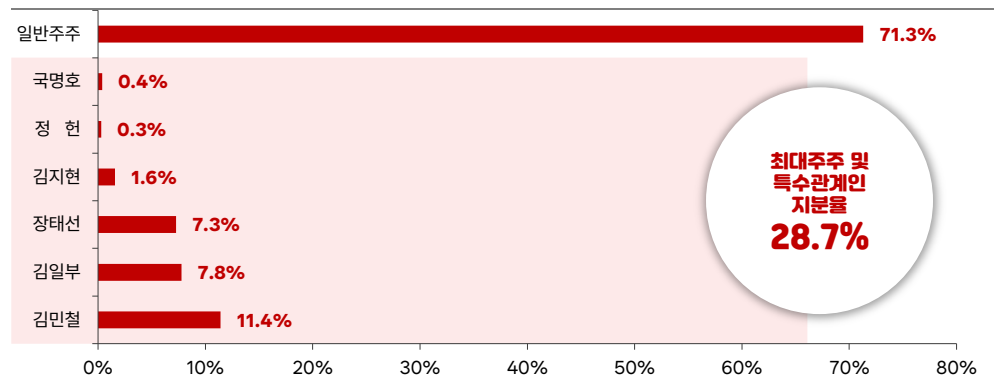
1대주주

김민철 대표이사 11.4%

2025년 3분기말 기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28.7%이다. 1대주주는 김민철 대표이사(1979년생)로 지분율은 11.4%이다. 상신이디피 창업주 김일부 대표이사(1950년생)의 장남이다. 김일부 대표이사는 삼성전자와 삼성전관(전 삼성SDI) 출신으로 1985년 상신이디피를 설립했다. 김일부 대표이사의 지분율은 7.77%이다. 이 외 특수관계인은 김민철 대표이사의 어머니 장태선씨가 7.27%를 보유하고 있다.

이 외 5% 이상의 주주, 자사주, 우ரி사주 보합이 보유한 주식은 없다.

주요 주주(3Q25)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산업 현황

1 2차전지 폼팩터 변화: 각형 르네상스

각형 르네상스

1)안정성 강화

2)CTP

2차전지 산업은 현재 단순한 용량 증대 경쟁을 넘어, 안전성과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폼팩터(Form Factor, 배터리 형태) 재편 구간에 진입했다. 초기 전기차 확산이 테슬라 진영의 원통형과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파우치형 간의 대결 구도였다면, 앞으로는 각형 배터리가 시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들이 각형 도입을 확대하는 배경에는 안정성 강화와 전기차 플랫폼의 기술적 진화(Cell-to-Pack)가 있다.

안정성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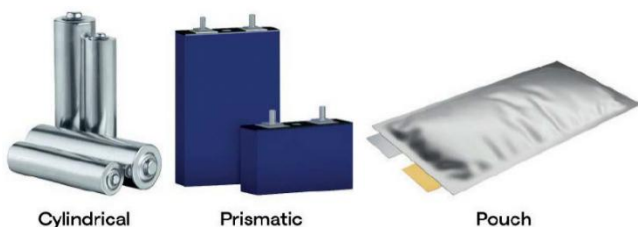
파우치형 배터리는 알루미늄-플라스틱 필름을 외장재로 사용하여 무게가 가볍고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데 유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연성(Flexible) 소재의 특성상 물리적 충격에 취약하며, 충·방전 반복 시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스웰링(Swelling) 현상을 제어하기 위해 모듈 단위에서 별도의 프레임과 가압 장치가 필요하다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반면, 알루미늄이나 스틸 소재의 단단한 캔을 사용하는 각형 배터리는 그 자체로 구조적 강성을 지닌다. 이는 최근 안전성 이슈가 부각되는 하이니켈 양극재 적용 시 결정적인 장점으로 작용한다.

각형 배터리의 상단 캡 어셈블리(Cap Assembly)에는 내부 압력 상승 시 가스를 배출하는 벤트(Vent)가 설계되어 있다. 이 벤트를 통해 열폭주 발생 시 가스를 특정 방향으로 배출함으로써 인접 셀로의 열 전이를 억제하는 열 관리 시스템 설계가 용이하다. 이와 달리 파우치형은 씰링(Sealing) 부위가 터지면서 가스가 불규칙하게 분출될 위험이 있어 열 관리 시스템 설계가 복잡한 단점이 있다.

또한, 각형 배터리의 알루미늄 캔은 하이니켈 양극재 배터리의 부피 팽창 압력을 기계적으로 억제하여 전극 간의 접촉을 유지시키고 수명을 연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차전지 주요 폼팩터



자료: Ennov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각형 배터리 구조



자료: 삼성SD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기술적 진화: CTP(Cell-to-Pack)

CTP(Cell-to-Pack) 기술의 도입은 전기차 제조 원가 절감의 핵심 트렌드로서, 각형 배터리 수요를 증가시키는 촉매로 작용하고 있다. CTP는 배터리 셀을 모듈에 담지 않고 팩(Pack)에 직접 통합하여 공간 효율을 높이는 기술이다.

CTP 구조에서는 배터리 셀 자체가 차량의 구조적 하중을 일부 견뎌야 한다. 파우치형은 자체 강성이 없어 별도의 거치대가 필요하여 CTP 구현 시 공간 이득이 상쇄되는 한계가 있다. 반면, 단단한 캔을 사용하는 각형 배터리는 자체로 강성을 지니므로 벽돌처럼 빈틈없이 쌓아 팩의 구조적 강성을 보완할 수 있다.

또한, 직육면체 형태인 각형 배터리는 팩킹(Packing)시 빈틈없는 적재가 가능하여 원통형 배터리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셀 사이의 빈 공간(Dead Space)을 최소화한다. 이는 팩 단위의 에너지 밀도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주행거리 연장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완성차 제조사들에게 강력한 유인책이 된다.

셀-모듈-팩 구조와 셀-팩 구조



자료: 삼성SDI,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각형 채택

과거 파우치형을 주력으로 채택했던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의 전략 수정은 각형 르네상스를 뒷받침하고 있다.

GM은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파우치형 기반의 얼티엄 플랫폼을 구축했으나, 최근 차세대 모델과 폼팩터 다변화 전략에서 각형을 적극 도입하고 있다. GM은 삼성SDI와 인디애나주 뉴 칼라일(New Carlisle)에 35억 달러 규모의 합작 공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다. 당초 이 공장은 각형-원통형 혼용이 검토되었으나, 각형 배터리를 우선 양산할 것으로 알려졌다.

E-GMP(Electric-Global Modular Platform) 플랫폼에서 파우치형을 고수하던 현대차그룹 역시 차세대 승용 전기차 플랫폼 eM(electric-Midsize) 및 하이브리드 라인업에서 각형 배터리 채택을 공식화했다.

현대차는 2026년부터 2032년까지 7년간 유럽 시장용 전기차에 삼성SDI의 6세대 각형 배터리(P6)를 탑재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현대차와 삼성SDI 간의 사상 첫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현대차의 배터리 조달 전략이 파우치 일변도에서 각형 혼용으로 구조적 전환을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현대차는 의왕 연구소 및 안성 등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내재화) 구축 과정에서도 파우치 라인과 함께 각형 라인을 동시에 검토 및 구축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각형 배터리가 단순한 보조 수단이 아니라, 하이브리드(HEV) 및 보급형 EV의 주력 폼팩터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한다.

ESS 시장에서는 각형이 압도적

전기차 시장이 일시적 수요 정체(Chasm) 구간에 진입한 것과 대조적으로, 북미 전력망용 ESS 시장은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 급증 및 신재생 에너지 연계 의무화에 힘입어 구조적인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 시장에서 각형 배터리는 타 폼팩터 대비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점하고 있다.

특히 유틸리티급 대형 ESS는 전기차와 달리 주행거리(에너지 밀도)보다는 화재 안전성, 수명, 유지보수의 편의성이 핵심 요구 사항이다. 각형 배터리는 이러한 ESS의 특성에 최적화된 물리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첫째, 패키징 및 시스템 효율성이다. ESS는 수천 개의 셀을 랙(Rack) 형태의 컨테이너에 적재하는 방식을 취한다. 직육면체 형상의 각형 배터리는 낭비되는 공간(Dead Space)을 최소화하여 적재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으며, 랙 내부의 공랭(Air-cooling) 또는 수랭(Liquid-cooling) 채널을 설계하기에도 유리하다. 반면, 원통형 배터리는 수만 개의 셀을 연결해야 하므로 BMS(배터리 관리 시스템) 구성이 복잡하고 접점 불량에 따른 화재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

둘째, 화재 안전성 측면의 우위다. 데이터센터용 UPS(Uninterruptible Power Supply, 무정전 전원 장치)나 대형 ESS의 화재는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직결된다. 각형 캔은 상단의 벤트(Vent)를 통해 가스를 외부 덕트로 배출하는 방향성 벤팅(Directional Venting) 설계가 용이하다. 이는 셀 하나가 발화하더라도 인접 셀로 열이 전이되는 현상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데 최적화된 솔루션으로 평가받는다.



투자포인트

1 주요 고객의 ESS 물량 증가

고객의 ESS 물량 증가로 상신인디애나의 성장 기대

최근 북미와 유럽 등 주요 선진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확산과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소비량 증가로 인해 ESS 수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상신이디피의 주요 고객사 S사는 뛰어난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를 바탕으로 이러한 시장 기회를 적극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실제로 2025년 3월, 미국 최대 전력 기업인 넥스트에라에너지(NextEra Energy)와 약 4,000억 원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25년 6월에는 유럽 테스볼트와의 공급 계약 체결했다. 또한 국내에서도 화재 안전성을 인정받아 1조 원 규모의 공공 ESS 입찰 시장(1차)에서 전체 물량의 약 76%를 수주하며 경쟁력을 입증하였다.

이를 위해 상신이디피의 주요 고객사 S사는 시장 수요 변화에 따라 설비 운영 계획을 유연하게 조정하고 있다. 2026년 하반기 양산을 목표로 LFP 라인 도입을 준비 중이며, 향후 미국 인디애나주에 약 3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ESS 전용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텔란티스와의 합작 법인(StarPlus Energy) 1공장의 운영 전략 변화다. 전기차(EV) 수요 둔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당초 EV용으로 설계되었던 라인 중 일부를 ESS용으로 전환하여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현재 인디애나 1공장에서는 ESS용 NCA 배터리 생산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LFP 배터리 양산 라인으로의 전환 및 확대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상신이디피는 주요 고객사 S사의 북미 ESS 사업 로드맵에 연동하여 인디애나 법인의 설비 증설을 추진한다. 고객사의 ESS 생산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 각형 캔 전용 라인 3~4개를 신규 도입할 예정이다. 현재 가동 중인 6개 라인에 추가 설비가 본격 가동되는 2026년 4분기부터 동사의 실적 레벨업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S사 미국 ESS 설비 가동 계획

	가동 시점	양극재	폼 팩터	설비용량
ESS	4Q25	NCA	각형	7GWh
	4Q26	LFP	각형	12GWh
	1Q27	LFP	각형	12GWh

자료: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2 고객 다변화 가능성

중국 및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새로운 글로벌 각형 공급망이 필요

상신이디피는 그동안 전체 매출의 90%를 상회하는 높은 단일 고객사 의존도로 인해 밸류에이션 확장이 제한되는 구조적 디스카운트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글로벌 배터리 공급망 재편과 함께 동사가 선제적으로 구축한 해외 생산 거점의 가치가 부각되며, 본격적인 고객사 다변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미국 IRA(인플레이션 감축법)와 유럽 CRMA(핵심원자재법) 등 지정학적 무역 장벽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 배터리 셀 제조사들이 헝가리, 말레이시아 등지로 생산 기지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 배터리 캔은 부피가 커 물류비 민감도가 높은 부품이므로 셀 제조 공장 인근에서의 현지 조달이 필수적이다. 커다리(Kedali) 등 일부 중국 선도 부품사가 동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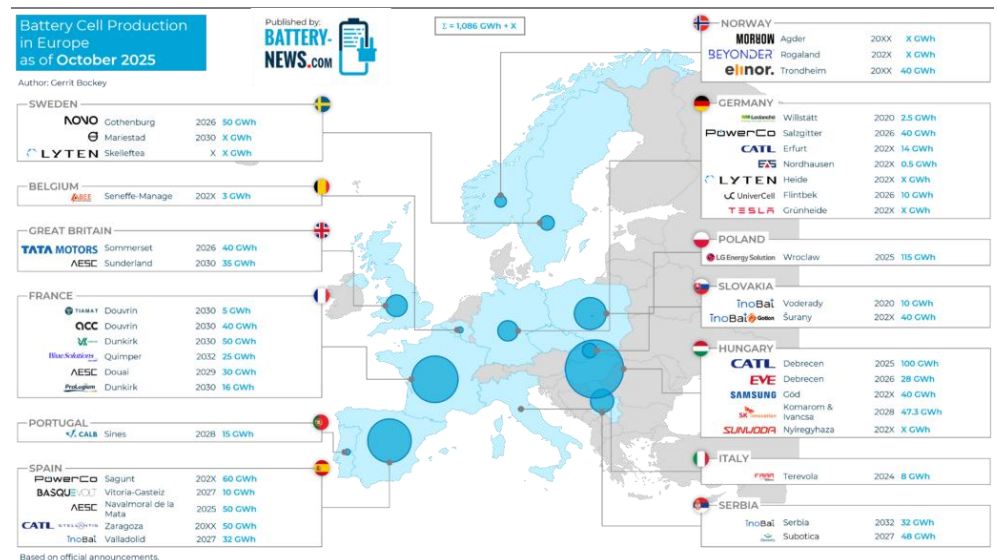
진출해 있으나, 급증하는 현지 생산량을 단일 공급처에만 의존하는 것은 공급망 안정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 또한, 강화되는 글로벌 규제 환경 속에서 비(非)중국계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완성차 업체들의 요구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헝가리와 말레이시아에 대규모 양산 체제를 갖추고 주요 고객사에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 중인 상신 이디피의 가치가 재평가받고 있다. 해외 진출을 시도하는 중국 기업 입장에서 검증된 품질과 즉시 공급 가능한 설비를 보유한 상신이디피는 공급망 안정성을 제고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최적의 벤더 다변화 파트너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경쟁사 및 완성차 업체의 폼팩터(Form Factor) 전환 역시 중요한 기회 요인이다. 기존 파우치형을 고수하던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각형 배터리 도입을 검토함에 따라 상신이디피의 잠재적 타겟 시장이 확장되고 있다. 전기차 및 ESS용 중대형 각형 캔은 스마트폰용 소형 캔과 달리 고압을 견디는 정밀 금형 기술과 벤트(Vent), 퓨즈(Fuse) 등 안전장치 제조 노하우가 핵심 경쟁력이다. 국내에서 중대형 각형 캔 대량 양산 경험을 보유한 업체가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후발 주자로 각형 양산을 시작하는 경쟁사나 OEM 내재화 라인은 초기 수율 안정화를 위해 검증된 벤더의 부품을 채택할 유인이 높다. 상신이디피는 이러한 시장 변화에 맞춰 신규 고객사 확보를 위한 영업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미 구축된 상신이디피의 글로벌 생산 거점이 신규 고객사를 유인하는 핵심 자산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각형 배터리 시장 확대라는 우호적 산업 환경이 맞물리며 동사의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 요인이 해소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다.

유럽지역 주요 이차전지 업체 생산지역



자료: battery-news.com, 한국IR협의회 기업리서치센터

실적 추이 및 전망**2025년 실적 전망****2025E****매출액 2,412억 원(yoy -4.2%)****영업이익 91억 원(흑자 전환)**

상신이디피의 실적 흐름은 주요 고객사인 S사의 업황 및 재고 정책과 궤를 같이한다. 2023년의 호실적, 2024년의 급격한 조정, 그리고 2025년의 점진적 회복세로 이어지는 추이는 주요 고객 S사의 상황을 반영한다.

1. 2023년: 전방 산업 호조에 따른 최대 실적 달성

2023년 3분기 상신이디피는 영업이익 140억 원을 기록하며 분기 실적의 정점을 찍었다. 이는 전동공구 시장의 견조한 수요와 전기차(EV) 신규 고객사의 물량이 더해진 결과다. 해당 분기 원형 캔 생산량은 5.3억 개로 분기 최대치를 경신했으며, 중대형 캔 역시 3,200만 개를 기록하며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중대형 캔의 경우, BMW와 아우디 등 유럽 완성차 업체를 대상으로 한 5세대 각형 배터리(P5)의 판매 호조가 생산량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2. 2024년: 수요 둔화와 강도 높은 재고 조정

2024년은 전방 산업의 수요 절벽으로 인해 실적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4분기에는 영업손실 102억 원을 기록하며 적자 전환했다. 원형 캔 부문은 글로벌 건설 경기 침체로 주력인 전동공구 수요가 감소했고, 이에 따라 S사가 강도 높은 재고 조정(Destocking)을 단행하면서 부품 발주량이 급감했다. 중대형 캔 부문 또한 전기차 시장의 성장 둔화(Chasm) 여파로 유럽 완성차 업체들의 주문이 줄어들며 생산량이 크게 위축되었다.

3. 2025년: 재고조정 마무리 및 ESS 수요 기반의 실적 턴어라운드

2025년 3분기 누계 실적은 매출액 1,795억 원(yoy -8.8%), 영업이익 29억 원(yoy 48.0%), 영업이익률 1.6%(전년동기 대비 0.6%p 상승)을 기록했다. 원형 생산실적은 8.1억 개(yoy -28.4%), 중대형 생산실적은 6,049만 개(yoy -10.5%)로 감소했다. 전반적인 물량 감소에 따른 가동률 부진이 고정비 부담을 가중시키며 실적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다.

3분기 누계 실적은 부진했으나, 분기별 실적 흐름은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상반기

2025년 상반기 매출액은 전년 동기의 높은 기저 효과로 인해 역성장을 기록했다. 1분기 매출액은 583억 원(YoY -22.1%), 2분기 매출액은 613억 원(YoY -14.5%)으로 외형 축소가 불가피했다. 그러나 2분기부터 긍정적인 변화가 감지되었다. 전동공구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고, 재고 재축적(Restocking) 수요가 발생하며 원형 배터리 생산이 회복세를 보였다. 이에 힘입어 2분기 영업이익은 9억 원을 기록,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하며 실적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

하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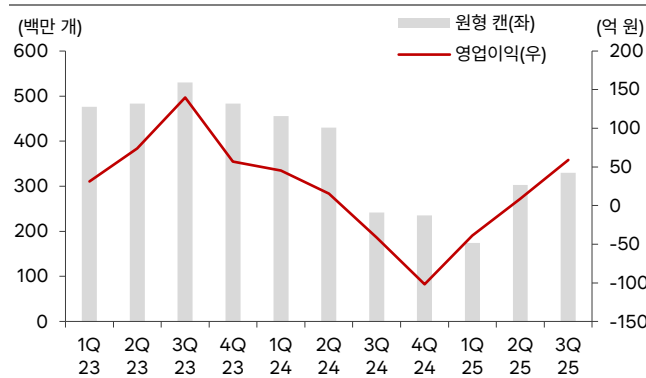
3분기에는 본격적인 실적 개선이 있었다. 2025년 3분기 실적은 매출액 599억 원(yoy 19.0%), 영업이익 59억 원(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 영업이익률 9.8%(전년동기대비 18.0%p 상승)을 기록했다. 전년도 재고 조정에 따른 기저 효과, 데이터센터 전력 백업용 장치인 BBU(Battery Backup Unit) 수요 증가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회복세에 접

어든 영향이 크다. 다만 소형 전지 부문의 호조와 달리, 중대형 전지 부문의 회복이 지연된 점은 다소 아쉬운 점이다.

2025년 4분기에는 중대형 부문의 개선이 기대된다. 주요 고객사 S사의 미국 ESS 설비가 2025년 4분기부터 가동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4분기 실적은 매출액 617억 원(yoy 12.3%), 영업이익 62억 원(전년동기대비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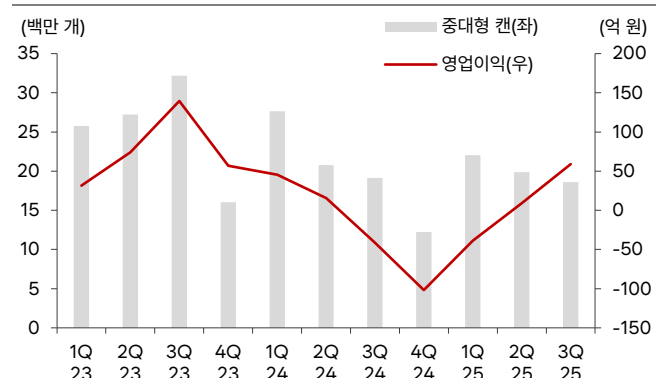
상신이디피의 2025년 연간 실적은 하반기에 회복에 힘입어 매출액 2,412억 원(yoy -4.2%), 영업이익 91억 원(흑자 전환), 영업이익률 3.8%(전년 대비 7.1%p 개선)이 예상된다.

상신이디피 분기별 원형 캔 생산량 추이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상신이디피 분기별 중대형 캔 생산량 추이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상신이디피 실적 추이 및 전망

(단위: 억 원)

구분	1Q24	2Q24	3Q24	4Q24	1Q25	2Q25	3Q25	4Q25E	3Q24 YTD	3Q25 YTD	2021	2022	2023	2024	2025E
매출액	749	716	504	550	583	613	599	617	1,969	1,795	1,975	2,908	3,016	2,518	2,412
원형	329	304	185	143	133	220	217	221	819	570	942	1,341	1,350	962	791
중대형	352	319	292	280	371	326	307	316	962	1,004	712	1,154	1,355	1,243	1,321
기타 및 연결조정	67	93	27	126	79	66	75	80	187	220	322	413	312	314	300
생산실적(천 개)															
원형	455,829	429,713	241,430	235,471	174,349	302,735	329,893		1,126,972	806,977	1,734,300	2,107,090	1,973,289	1,362,443	
중대형	27,652	20,784	19,141	12,204	22,030	19,871	18,593		67,577	60,494	66,688	93,994	101,222	79,781	
영업이익	45	16	-41	-102	-39	9	59	62	20	29	197	328	302	-82	91
영업이익률	6.1%	2.2%	-8.2%	-18.5%	-6.7%	1.4%	9.8%	10.0%	1.0%	1.6%	9.9%	11.3%	10.0%	-3.3%	3.8%
매출 비중															
원형	44%	42%	37%	26%	23%	36%	36%	36%	42%	32%	48%	46%	45%	38%	33%
중대형	47%	44%	58%	51%	64%	53%	51%	51%	49%	56%	36%	40%	45%	49%	55%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상신하이텍(중국 서안)의 2차전지 생산 및 판매가 2025년 8월부터 중단됨에 따라 2025년 매출에서 제외



Valuation

1 회복의 시작

완만한 우상향 기조로 전환된

주요 고객 S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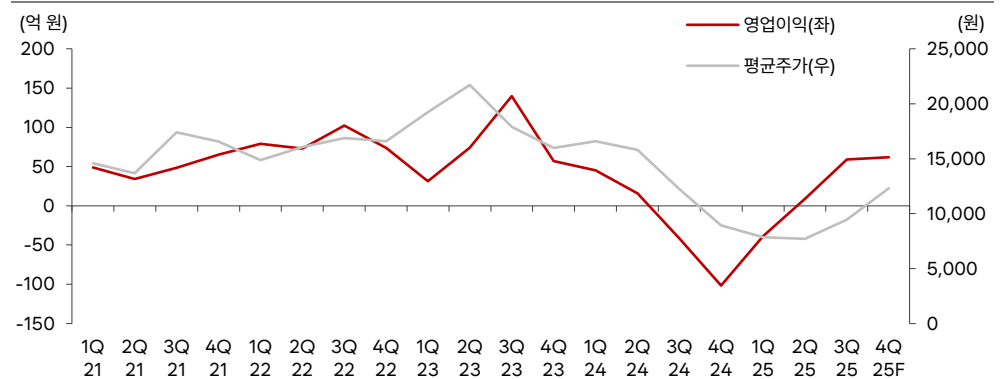
상신이디피는 2025년 예상 BPS 대비 1.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 이는 2021년 이후 형성된 PBR 밴드 0.6배~2.1배의 중하단에 위치한 것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의 가격 매력은 충분한 상태다. 동사의 주가는 실적과 밀접하게 연동되는 특성을 보인다. 2021년 1분기부터 2025년 4분기까지 주가와 분기 영업이익 간의 상관계수는 0.63으로, 이익의 방향성이 곧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주가 흐름의 핵심 변수는 최대 고객사인 S사의 이차전지 판매량 추이다.

2025년 S사의 판매량 추이는 바닥을 통과해 완만한 우상향 기조로 전환했다. 부문별로 상이한 업황이 전개되고 있다.

- **전기차(EV):** 유럽 및 북미 주요 완성차 업체의 전동화 속도 조절로 인해 단기적인 물량 급증은 제한적이다. 북미 스텔란티스 합작 1공장의 가동률 상승 또한 당초 계획보다 지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대기아차의 유럽향 차세대 전기차에 탑재되는 P6 배터리 공급을 앞두고 있는 점은 판매량 하단을 지지하는 긍정적 요인이다.
- **ESS(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와 달리 AI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급증이라는 구조적 성장에 힘입어 판매량이 확대되고 있다. 2025년 3월 미국 넥스트에라에너지(4천억 원 규모), 6월 유럽 테스볼트와의 공급 계약 체결은 물론, 국내 제1차 ESS 중앙계약시장 입찰에서도 압도적인 수주 성과(전체 8개 프로젝트 중 6개 확보)를 달성하며 실적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 **소형 전지:** 전동공구 고객사의 재고 조정이 마무리 국면에 진입하며 주문이 재개되었다. 또한, 데이터센터 전력 백업용 장치인 BBU(Battery Backup Unit) 수요 증가로 말레이시아 공장의 가동률이 회복세로 돌아선 점도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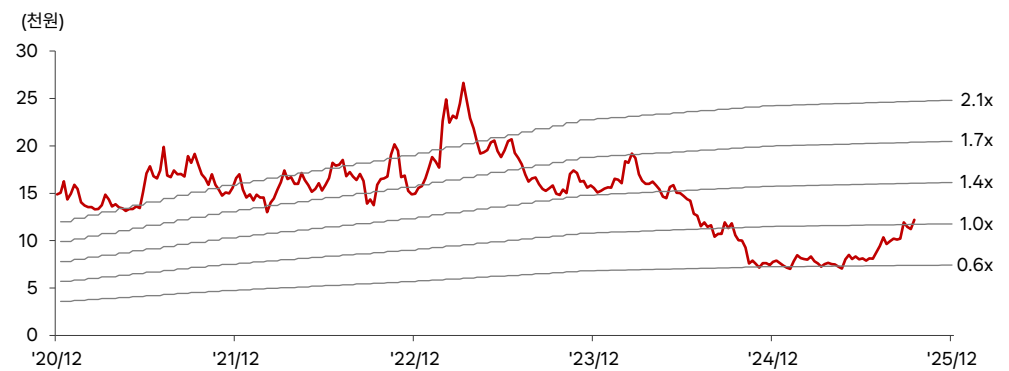
상신이디피의 주가는 2025년 상반기기를 저점으로 반등 추세를 형성했다. 이는 ESS와 소형 전지를 중심으로 한 고객사의 가동률 회복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주가는 PBR 밴드 하단에서 하방 경직성을 확보한 상태다. 향후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ESS 부문의 성장 속도와 다소 정체된 EV 부문의 수요가 언제 본격적으로 회복되는지에 달려 있다.

상신이디피 주가와 영업이익 추이



자료: 상신이디피,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상신이디피 역사적 P/B Band



자료: Quantiver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충분한 동종업체 대비 할증의 근거

유형자산회전율의 차이가 ROE의 차이로 연결

상신이디피는 2025년 예상 BPS(주당순자산가치) 대비 1.1배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동종 업체인 신홍에스이씨의 2025년 예상 PBR(주가순자산비율) 0.7배 대비 할증된 수치다.

두 기업은 모두 S사 2차전지 밸류체인인 핵심 협력사로서 배터리 외부 부품을 제조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주력 제품의 역할과 기술적 특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인다. 상신이디피는 정밀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배터리 소재를 담는 용기인 CAN을 주력으로 하는 반면, 신홍에스이씨는 폭발 방지 기술을 적용하여 안전 장치 역할을 하는 Cap Assembly(뚜껑)을 주력으로 생산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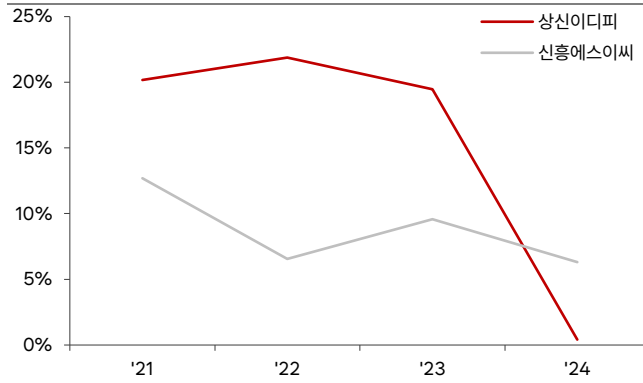
이러한 사업 구조의 차이는 수익성 지표인 ROE 격차로 이어진다. 2021년 이후 상신이디피는 신홍에스이씨보다 지속적으로 높은 ROE를 기록해 왔다. 최근 4년(2021~2024년)간 상신이디피의 평균 ROE는 15.5%로, 신홍에스이씨의 8.8%를 6.7%p 상회한다.

상신이디피가 더 높은 ROE를 창출할 수 있는 배경은 우수한 투자 효율성에 있다. 동 기간 평균 유형자산회전율(매출액/평균 유형자산)을 비교하면 상신이디피는 2.3회, 신홍에스이씨는 1.1회를 기록했다. 이는 상신이디피가 유형자산 규모만큼의 매출을 창출하는 데 약 5~6개월이 소요되는 반면, 신홍에스이씨는 1년 가까이 소요됨을 의미한다.

결론적으로, 높은 자산 회전율을 바탕으로 구조적인 고수익 체계를 갖춘 상신이디피가 경쟁사인 신홍에스이씨 대비 높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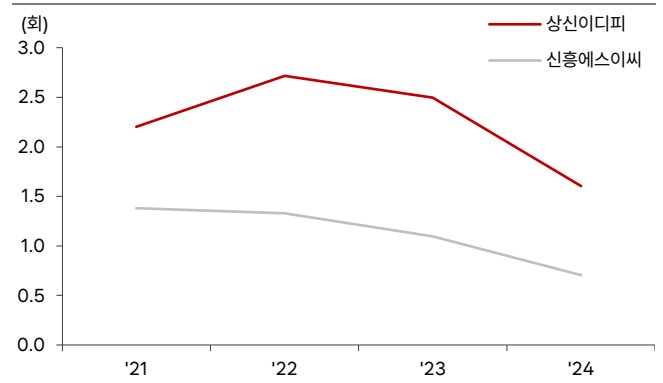
은 밸류에이션 배수를 적용받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상신이디피와 신홍에스이씨 ROE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상신이디피와 신홍에스이씨 유형자산회전율



자료: 각사,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동종업체 valuation

기업명	종가 (원)	시가총액(전체) (억 원)	매출액(억 원)		영업이익(억 원)		ROE		P/E(배)		P/B(배)	
			'24	'25E	'24	'25E	'24	'25E	'24	'25E	'24	'25E
상신이디피	13,040	1,738	2,518	2,412	-82	91	0.4%	2.5%	156	44	0.6	1.1
신홍에스이씨	5,470	2,109	4,328	4,078	132	12	6.3%	-3.3%	11	-22	0.7	0.7

자료: Quantwise, 한국IR협회의 기업리서치센터

주: 2025년 11월 28일 종가 기준, 상신이디피는 당사 리서치 추정, 신홍에스이씨 실적 추정치는 Fnguide 컨센서스 기준

리스크 요인

경쟁사 진입

공급망 구조 변화 시작

최근 상신이니디피의 주력 고객사인 S사의 배터리 캔 공급망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범(凡) LG가 기업인 LT정밀이 S사의 배터리 캔 공급망에 신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LT정밀은 국내 L사 향 원통형 캔 공급 이력을 바탕으로, S사와 GM의 합작법인(JV)에 각형 배터리 캔을 공급할 유력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예상 공급 시점은 합작 공장이 가동되는 2027년 전후다. 이는 그동안 상신이니디피가 S사의 각형 및 원통형 캔 물량 상당 부분을 담당하며 유지해 온 사실상의 독점적 공급 구조에 변화가 생김을 시사한다. 고객사 입장에서는 공급망 안정화와 벤더 간 경쟁 유도를 통한 단가 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상신이니디피에게는 잠재적인 마진 압박과 점유율 하락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사의 진입이 상신이니디피의 시장 지위를 급격히 훼손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독점 구조는 이원화되었으나, 상신이니디피 역시 S사-GM 합작법인에 배터리 캔을 공급하는 핵심 파트너로서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는 경쟁 심화 환경 속에서도 상신이니디피가 여전히 주요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또한 신규 진입자인 LT정밀이 초기 수율을 안정화하고 대량 생산 능력을 확보하기까지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단기간 내 상신이니디피의 주력 지위가 위협받을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결론적으로 경쟁사 진입은 고객사의 조달 전략 다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해석되며, 상신이니디피는 기확보된 북미 현지 생산 능력과 검증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S사 내 핵심 공급사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전망이다.

포괄손익계산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매출액	1,975	2,908	3,016	2,518	2,412
증가율(%)	30.2	47.2	3.7	-16.5	-4.2
매출원가	1,596	2,347	2,448	2,261	2,010
매출원가율(%)	80.8	80.7	81.2	89.8	83.3
매출총이익	379	561	569	257	402
매출이익률(%)	19.2	19.3	18.9	10.2	16.7
판매관리비	183	233	267	339	311
판매관리비율(%)	9.3	8.0	8.9	13.5	12.9
EBITDA	299	445	438	86	304
EBITDA 이익률(%)	15.1	15.3	14.5	3.4	12.6
증가율(%)	1.5	48.8	-1.6	-80.5	255.3
영업이익	197	328	302	-82	91
영업이익률(%)	9.9	11.3	10.0	-3.3	3.8
증가율(%)	0.9	66.7	-7.8	적전	흑전
영업외손익	33	-26	-5	50	-47
금융수익	17	3	7	22	21
금융비용	20	21	38	51	57
기타영업외손익	36	-8	26	79	-11
종속/관계기업관련손익	0	0	0	0	0
세전계속사업이익	230	301	297	-32	44
증가율(%)	111.1	31.3	-1.5	적전	흑전
법인세비용	54	56	35	-39	4
계속사업이익	175	245	262	6	40
중단사업이익	0	0	0	0	0
당기순이익	175	245	262	6	40
당기순이익률(%)	8.9	8.4	8.7	0.3	1.6
증가율(%)	102.8	39.8	7.0	-97.6	519.8
지배주주지분 순이익	175	245	262	6	40

현금흐름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영업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187	366	466	-23	247
당기순이익	175	245	262	6	40
유형자산 상각비	101	116	134	166	211
무형자산 상각비	2	2	2	2	2
외환손익	21	101	29	7	0
운전자본의감소(증가)	-110	-76	77	-84	10
기타	-2	-22	-38	-120	-16
투자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321	-301	-271	-396	-339
투자자산의 감소(증가)	9	0	0	23	1
유형자산의 감소	21	10	4	4	0
유형자산의 증가(CAPEX)	-347	-300	-317	-437	-355
기타	-4	-11	42	14	15
재무활동으로인한현금흐름	65	89	219	183	-14
차입금의 증가(감소)	52	128	245	241	-0
사채의증가(감소)	0	0	0	0	0
자본의 증가	0	0	0	0	0
배당금	-9	-14	-16	-16	-13
기타	22	-25	-10	-42	-1
기타현금흐름	6	-48	2	32	1
현금의증가(감소)	-63	107	415	-203	-105
기초현금	361	298	405	821	618
기말현금	298	405	821	618	513

재무상태표

(억원)	2021	2022	2023	2024	2025F
유동자산	935	1,273	1,534	1,231	1,101
현금성자산	298	405	821	618	513
단기투자자산	8	14	7	27	26
매출채권	334	457	387	195	187
재고자산	239	278	251	309	296
기타유동자산	56	118	68	83	79
비유동자산	1,072	1,172	1,373	1,948	2,089
유형자산	1,021	1,120	1,296	1,841	1,985
무형자산	8	15	13	14	12
투자자산	15	10	30	17	16
기타비유동자산	28	27	34	76	76
자산총계	2,007	2,445	2,907	3,179	3,190
유동부채	855	1,082	1,296	1,361	1,345
단기차입금	481	538	837	968	968
매입채무	200	290	265	251	241
기타유동부채	174	254	194	142	136
비유동부채	137	139	140	276	276
사채	0	0	0	0	0
장기차입금	113	125	110	261	261
기타비유동부채	24	14	30	15	15
부채총계	992	1,221	1,436	1,637	1,621
지배주주지분	1,014	1,224	1,471	1,542	1,568
자본금	69	69	69	69	69
자본잉여금	376	384	384	384	384
자본조정 등	0	-21	-21	-15	-15
기타포괄이익누계액	14	4	4	109	109
이익잉여금	557	788	1,035	995	1,021
자본총계	1,014	1,224	1,471	1,542	1,568

주요투자지표

	2021	2022	2023	2024	2025F
P/E(배)	11.9	8.3	8.2	156.3	43.9
P/B(배)	2.1	1.7	1.5	0.6	1.1
P/S(배)	1.1	0.7	0.7	0.4	0.7
EV/EBITDA(배)	8.1	5.3	5.3	19.1	8.1
배당수익률(%)	0.6	0.8	0.8	1.3	0.8
EPS(원)	1,311	1,804	1,924	47	297
BPS(원)	7,503	8,984	10,792	11,483	11,767
SPS(원)	14,778	21,419	22,133	18,693	18,094
DPS(원)	100	115	120	100	100
수익성(%)					
ROE	20.2	21.9	19.5	0.4	2.5
ROA	9.7	11.0	9.8	0.2	1.2
ROIC	13.3	18.6	17.0	-1.8	3.8
안정성(%)					
유동비율	109.4	117.6	118.3	90.5	81.8
부채비율	97.8	99.7	97.6	106.2	103.4
순차입금비율	31.1	26.1	12.4	41.1	47.1
이자보상배율	14.2	15.5	8.0	-1.6	1.6
활동성(%)					
총자산회전율	1.1	1.3	1.1	0.8	0.8
매출채권회전율	6.8	7.3	7.1	8.7	12.6
재고자산회전율	10.9	11.2	11.4	9.0	8.0

최근 3개월간 한국거래소 시장경보제도 지정 여부

시장경보제도란?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투자자주의 환기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관련근거: 시장감시규정 제5조의2, 제5조의3 및 시장감시규정 시행세칙 제3조~제3조의 7

종목명	투자주의종목	투자경고종목	투자위험종목
상신이디피	X	X	X

발간 History

발간일	제목
2025.12.02	상신이디피-2차전지 캔 전문기업
2022.08.19	상신이디피-2022년에도 헝가리법인 인수효과 지속

Compliance notice

본 보고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이 공동으로 출연한 한국IR협의회 산하 독립 (리서치) 조직인 기업리서치센터가 작성한 기업분석 보고서입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에게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양질의 투자정보 제공 및 건전한 투자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당사 리서치센터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와 그 배우자 등 관계자는 자료 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는 중소형 기업 소개를 위해 작성되었으며, 매수 및 매도 추천 의견은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자료제공일 현재 시점의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본 조사자료는 투자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명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텔레그램에서 "한국IR협의회(<https://t.me/kirsofficial>)" 채널을 추가하시어 보고서 발간 소식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IR협의회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IRTV'에서 1) 애널리스트가 직접 취재한 기업탐방으로 CEO인터뷰 등이 있는 '小中한탐방'과 2) 기업보고서 심층해설방송인 '小中한 리포트 가치보기'를 보실 수 있습니다.